

# 地方新聞의 經營과 製作

때 : 1985. 11. 29~12. 1

곳 : 水原 브라운호텔

主題論文 : 姜 杓 遠(江原日報社長)

## 1. 머리말

지방신문의 경영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은 없는가의 관심과 고민은 비단 지방사의 경영진이나 영업부서만의 문제는 아니며 그 모색의 旅程은 안개 속을 향해하는 선박과 다름없이 길고 불투명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지방신문의 편집간부 연구토론회에서 발표자에게 「지방신문 경영과 문제점」이란 주제를 준 것도 비록 제작부서의 책임자 입장이지만 독자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을 통해 경영의 어려움을 타개코자 하는 고민과, 제작과 판매의 협력체제가 갈수록 요구되고 있는 당면 현실에 어떻게 하면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의 또 다른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본 발표자 역시 조그마한 地方新聞의 경영 책임자로서 助言을 받아야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本稿에서는 이미 표출돼 있는 지방신문 경영상의 문제점을 정리해보고 더 깊이 토론해보고자 하는 문제提起에 主眼을 둘 수밖에 없었다.

## 2. 地方新聞의 興件과 장애요인

지방신문의 여건은 지역환경, 도시규모, 道勢, 人口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여러가지 면에서 장애요인이 작용되어 있는 점은 같다.

각 분야의 국가관리체제와 중앙집중현상에 따른 中央紙의 편집형태의 불가피성, 취약한 시장, 제작시설의 落後, 인력부족, 低賃金현상 등으로 거개의 지방신문은 마치 山넘어 山, 물 건너 물이라고 표현될 만큼 어려움 속에서 경영되고 있다.

우선 紙面數에서 中央紙의 後尾를 따라잡기에 바빴고 제작 시설에서 先頭를 점해 본적이 없는 사실이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 紙面特性化와 商品性

지역신문이 지역 신문답게 제작되어야 함은 두말을 필요치 않으며 경영 제작진의 생각도 이에 못 미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地方時代가 到來하지 않는 현시점에서 의 구독성향은 다분히 중앙정보에 편중돼 있어 아직은 紙面의 特性化는 이상과 목표로 남겨둘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모든 제도와 시책, 문화, 경제활동이 국가관리 체제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중앙 집중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누구도 중앙의 情報에 어두워서는 활동할 수 없다. 때문에 域內情報의 지면제작은 독자의 기반을 확보할 수 없으며 더구나 道勢와 주민소득이 낮은 지역을 市場으로 가지고 있는 지방신문은 '어느 신문이나 한 신문'을 선택하려는 경향 때문에 中央紙의 편집형태를 감수하는 외에 달리 길이 없다.

소득이 높거나 식자층에선 이러한 지방신문의 편집형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하고 우둔함을 나무라며 '地域紙다운 地域紙'를 권고하기도 한다.

그들은 중앙신문과 지역신문을 併讀할 수 있는 계층이며 또 兩個의 신문을 통해 특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識見있는 계층일 뿐인 것이다.

이 기회에 지역민의 관심이 향토에 묶여있지 못하고 域外로 誘引되어 나가고 있는 실상을 地方 行政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공감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人事와 豫算의 제도와 구조에 지방의 재량이 어느정도 있는가 하는 점이다. 도지사 人事權은 실제로 5급(사무관)이하에만 행사된다. 그 이상의 직급은 지사의 고유 권한이거나 아니거나, 知事에게 위임되어 있거나 아니거나 재량껏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실상이다. 道局長 市長 郡守의 水平異動까지도 내무부의 조정을 받고 있고 명예 퇴직 정년퇴직 사표 등에 의해 비워지는 자리까지도 내부 승진 기용이 거의 허용되지 않고 전국 단위의 조종 요인으로 내무부의 통제를 받고있다.

때문에 지방청의 최고 인사권자인 知事의 信任度와 능력評價度만으로는 신상이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는 관료들의 관심이 자연히 중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그것은 소신과 향토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도 중앙통제는 두드러지고 있다. 내무부 승인 사항인 道豫算편성은 그렇다 하더라도 副知事전결인 시·군예산까지도 사실상 내무부의 조정을 받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38.6%에 불과한 강원도의 경우 편성과 집행과정의 上部干與度가 더더욱 높다고 보아야 하고 정부지정 사업이 지역 실정에 걸맞든 아니든 우선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행정은 지역민과 유리될 요소를 다분히 지니고 있을뿐 아니라 지역 여론이 수렴되기 어려운 跋行性을 안고 있으며 자연히 지역여론과 이익을 대변하는 향토지의 역할과 기능이 약화되게 마련인 것이다. 紙面을 통한 지역이익의 대변이란 중요한 역할이 허공에 흩날려버릴 때 그 지방신문이 그 지역민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 취약한 市場性과 제작시설

전국을 배포구역으로 하고 대도시 중심의 신문보급을 하는 中央新聞과는 달리 지방신문은 한정된 구역과 배포중심권(都市)이 미약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 比較劣位의 이러한 여건은 판매 배달 대금회수에 있어서 상식이상의 압박을 주고 있다.

江原道의 경우 道廳소재지이자 신문발행지인 春川市 인구가 17만명에 불과하고 道內 6개시의 총인구가 中都市의 인구에도 못미치는 74만명에 불과하다.

더구나 생산활동이 미약하고 주민소득이 영세하기 때문에 中央紙와 地方紙를 함께 구독할 수 있는 인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여타 市郡의 경우는 더할 나위가 없다. 그러므로 中央新聞과 같은 市郡소재지 중심의 판매만으로는 部數를 신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郡地域 이하까지도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취약지에는 割制를 높여주어야 하고 비용부담을 여타 지역과는 달리 본사가 떠안아야 하므로 전체적인 新聞原價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방신문은 제작시설의 낙후와 미비로 상품의 외형적 가치도 뒤떨어져 CTS 도입, 고속윤전기의 오프셋화, 제작공정의 자동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中央新聞에 비해 낡은 舊式윤전기와 수동식을 면치 못하는 부대시설을 가지고 있는 거개의 지방신문은 우선 선명도에서 경쟁에 뒤지고 있다. 또 제작 소요시간의 과다로 기사 마감 시간을 앞당겨 발행시간을 중앙신문과 맞추기 위해 뉴스결손이 불가피하거나 중앙신문과 등거리 배달지역은 배달경쟁에서 뒤지고 있다.

紙面의 내용이 흡사하고 선명도가 뒤지며 뉴스의 결손이 더하고 배달이 늦는다면 굳이 지방신문을 선택할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지방신문의 보급전략은 다분히 애항심에 호소하는 방향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人力부족 · 高經歷化

지방신문은 대체로 가족적인 분위기를 자랑하고 있다.

가족적인 분위기는 업무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유용하게 작용되고 있으나 人力이 적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江原日報의 제작인력을 보면 편집국 72명(논설위원 4, 주재기자 18명 포함) 공무국이 61명(外刊조판 2명포함)이다. 편집국의 面當人力은 6명이며 편집부와 교열부는 각 10명으로 1人當 週 7.2面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신문의 경우 1人當 週4面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편집부원수가 20명을 넘고 있다. 地方社에는 1~2개신문사가 中央社에 접근한 18명 내외의 편집기자를 갖고 있

을 뿐이다. 거개의 지방신문은 부장까지도 실무에 투입되고 있고 內勤部署 記者가 여가에 기획물취재, 부대간행물 등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증원을 억제하면서도 급료수준은 중앙사를 따라잡을 길이 없는 것이 고민이며 가족적인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는 탓으로 高經歷化추세를 걷고 있는 것이 지방신문이다. 江原日報의 경우 251명의 社員중 30년 1명, 25년이상 7명, 20년이상 13명, 15년이상 21명, 10년이상 23명 등 10년이상의 高經歷者가 65명으로 전체의 25.8%를 점하고 있고 20년 이상은 21명으로 8.3%에 해당하고 있다.

部長級이상은 48명으로서 이들의 총 근속연수는 854년, 평균근속 연수는 17.8년을 나타내고있다. 따라서 高經歷者의 인건비가 경영의 적지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20년 이상자의 人件費가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를 실감할 수 있는 것이다.

高經歷者의 과다현상은 신분보장과 가족적 협력체제 구축에는 더 이상 좋을 것이 없겠으나 급료에 비례한 퇴직금문제가 뒤따르며 승진의 문호가 좁아져 인사적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地方紙 육성시책의 不在

이상言及한바와 같이 허다한 악조건이 있음에도 지방신문 육성을 위한 시책과 제도는 마련돼 있지 못하다. 中小企業수준을 넘지 못하는 地方신문에는 長期低利用자등의 길이 열려있어야 한다. 關稅 등이 그 예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권장사항이 地方社의 경영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 적용되어 이를 따르기가 보통 힘겨운 것이 아니다.

人件費 즉 급료수준의 권장이 그 예이다. 언론단체의 포용력도 미흡함을 느끼게 한다. 자질향상교육, 해외연수, 견학·시찰 등에서 지방사의 비중이 많이 向上되고 있긴 하지만 지방사회원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검토될 것이 절실하다.

그밖에 직급 직종에 따라 가입돼있는 각종 언론단체의 보이지 않는 忽待의 분위기가 지방사를 외롭고 서럽게 만든다는 소리가 적지 않음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3. 더 모색해야 할 課題

#### 1) 經營측면

##### 經營보완적 부대사업

신문·광고판매시장의 한계성·취약성은 개발진도 및 경제활동상황의 好轉여부가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本業외에 附帶事業을 개발할 것이 요구된다

신문의 公機能的 성격으로 보아서 부대사업의 개발이란 바람직한 것이 아니나 경영보완적인 측면으로 보아 불가결하다. 그러나 막상 신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많은 제약이 따른다. 우선 實利가 名分을 優先할 수 없는 점이다. 수익성 채산성만을 따라서는 장사꾼 屬性이 지탄의 대상이 되기 십상인 것이다. 名分이 있는 사업이라야 지역사회가 용인할 것이고 협력하게 될 것이다.

江原日報의 경우 年間 15억규모의 출판인쇄사업을 하고 있다. 이것으로 연간 3억원 가량이 신문경영에 보태지고 있다.

83년까지는 지방군소업자와 경합상태에 있었으나 84년 컬러시설을 도입하면서부터 군소업자가 못하는 고급인쇄물에 치중하고 受注高의 25%의 물량을 서울에서 확보하고 있으며 大學教科書 鄉土紙 校紙등 연간 100만부 정도의 책자를 인쇄하고 있다. 江原年鑑을 비롯해서 鄉土學분야의 각종 책자도 이 인쇄시설을 이용하여 發刊 판매하고 있다. 名分과 實利가 함께 보장되는 부대사업 분야를 개척해서 경영의 짐을 덜어내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 文化事業과 讀者基盤

지방신문과 주민사이의 관계는 다분히 애향심이 촉매제가 되며 그 애향심을 일깨우는 일이 독자기반을 튼튼히 하는 길임은 이미 言及한바 있다.

따라서 애향심의 한 領域에 「鄉土紙사랑」이란 부분을 포함시키도록 해야 하며 그러자면 좋은 신문을 만드는 노력 못지않게 지역을 위한 유익한 사업을 여러 각도로 연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개의 지방신문은 많은 적든 文化·體育事業을 벌이고 있다. 경영상태로 보아 선 감당하기 힘든 짐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적합하게 선택되고 호응도가 높은 것이면 다소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地域紙가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짐을 져주고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이미 收穫은 거두고 있는 것이며 더 많은 큰사업을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중앙신문이 거두고 있는 수확보다 훨씬 확실하고 보장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장래에 대비하는 것으로 어린이를 위한 사업을 선택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 글짓기, 서예, 그림경연, 음악회, 어린이신문 발행등은 고장의 어린이를 지역의 주인공으로 키워나가는 뜻있는 일일뿐 아니라 어려서부터 郷土紙의 존재와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효과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어려서 접한 事物이 오래도록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 처럼 신문과 한번 인연을 가진 어린이들은 장래의 독자라고 보아도 크게 어긋나는 짐작은 아닐 것이다. 강원일보가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어린이신문을 발행하고 어린이회관을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어린이행사를 마련한 것도 이런 판단에 의한 것이다.

강원일보는 지난 16~17일 처음 도내직장 클럽 테니스대회를 마련한바 있다.

예상밖으로 56개팀 4백여명의 사회인이 참가하여 강원일보 체육행사 중 최대규모였다. 그뿐 아니라 횡적인 유대가 없던 직장·클럽인들이 한데 어울려 친교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사업이 지역민의 호응도가 높고 지역민을 위해 선택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지방신문이 지면을 통해서뿐 아니라 건강하고 윤택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많은 짐을 져주는 것은 신문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 一線組織의 活性化와 전문인 투입

다음으로는 어떻게 하면 일선조직에 더 활력을 불어넣느냐 하는 일이다.

序頭に 언급한바와 같이 지방신문은 도시중심의 판매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郡 이하의 지역조직을 균형있게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개의 경우 支社 보급소는 非專門人과의 계약에 의해 都·散賣관계로 이루어져

있어 前近代의 경영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本社에서 양성된 경험자와 전문인의 투입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江原日報는 79년 原州 江陵 東草, 82년 東海, 84년 鐵原 麟蹄, 85년 高城 등지의 支社 보급소를 직영화하고 본사에서 양성한 보급·광고·출판·취재분야의 사원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다. 직영 첫해에는 163%의 업무신장을 보였고 매년 130%의 伸張勢를 보이고 있어 나름대로 成功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점차 郡단위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기획·심의기능

증원을 억제할 수밖에 없는 지방사로선 기구의 증설·확충이 인력 및 경비의 증대를 초래하기 때문에 현업부서 支援기구를 갖고있지 못하거나 충실히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적은 인력으로 현업에 종사하기조차 버거운 형편이어서 다분히 업무가 非戰略·非科學的이 되어 있다.

시민의식의 향상추세, 정보의 다변화에 대처해 나가자면 조직적인 정보수집과 전략의 수립, 꾸준한 전략의 개선이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치밀한 시장조사, 구매성향관찰, 신문보급, 광고판매와 관련된 공공기관 사회단체의 사업계획·예산내용 파악등이 支援部署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기획 심의기능을 통한 부단한 方向提示가 있어야 소위 주먹구구식의 영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人力的 정예화

人力和 賃金문제는 사원들의 최대 저항요소로 등장되어 있다. 生活給이나 아니나는 이미 저간의 쟁점이고 요즘에 와서는 中央의 신문·방송사의 급료 수준과의 격차가 쟁점이 되고있다.

특히 매일 출입처에서 만나는 지방放送社 記者들의 급료가 放送本社와 차등이 없기 때문에 中央社 수준에 접근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행面數가 비교기준이 되는 人力문제도 賃金에 못지않게 심각하게 요구되고 있



다. 그러나 두 마리의 새를 함께 잡을 수 없는 것이 地方社의 고민인 것이다. 되도록 증원을 억제하여 일을 더하게 하고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江原日報의 경우 12面 增面을 단행할 때 기자증원을 10명으로 억제했다. 늘어난 4面 面當 2.5명꼴이며 이의 70%가 편집·교열부에 배치되어 있다.

신입사원 1명의 인건비를 年間 500만원정도(상여금 포함)로 계산할 때 10명의 인건비만도 5,000만원에 이르며 공무원야 등의 증원까지 친다면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1억정도로 概算되는 것이다.

江原日報는 현재 地方部가 없다. 地方신문이 따로 地方部란 명칭의 부서를 두는 것도 마땅치 않았지만 증면인력의 억제와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取材2副局長席에 1명의 기사를 배치하여 각부의 지시사항과 주재기자의 행정적 업무를 담당케 하고 記事는 성격에 따라 각 취재부서에서 정리케 하고 있다.

이 制度는 주재기자의 소속감이 상실되고 지휘체계가 각 취재부장으로 多元化된다는 단점은 있으나 적어도 3~4명의 人力을 타 부서로 활용할 수 있고 행정記事는 道政部에서, 경제기사는 經濟部에서, 교육기사는 教育部에서 정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어 오류와 내용면에서의 보완이 독립된 지방부에서 보다 충실해지는 장점도 있다. 人力억제에 부수되는 과제는 인력의 정예화이다.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해나가자면 用兵의 理想처럼 一當百의 자질이 요구된다.

인력 過少는 업무량의 過多를 말하는 것이므로 정예화를 위한 연수 교육의 기회를 짜내기도 어려운 형편이기는 하나 休刊前日인 토요일 오후나 平日 日課후의 시간을 조금씩 떼어서 실무교양교육을 반복하고 틈틈이 社員研究討論會를 운영하여 조금씩이나마 자질 향상을 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協力體制의 필요성

우리는 경영과 편집권이 분리되는 신문형태를 희구하고 있으나 사회사업적 성격의 자본이 투입되지 않는 이상 理想論에 불과하다.

더구나 株主이익 배당도 못하는 경영상태로는 株主의 지속적인 投資를 기대할수

도 없기 때문에 自救策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동전선·공동전략의 협력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거개의 지방사가 오랫동안 전사원 신문보급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신문 판매를 어느 부서에만 의존하기에는 벽찬 과제이기 때문이며 지방에서는 친소관계를 활용하는 보급방식이 有爲하기 때문이다.

신문판매도 상행위란 관점에서는 他部署, 특히 편집계 직원의 협력이 가급적 배제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자신들이 땀 흘려 만든 소중한 작품이란 창작행위로 본다 면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자기의 작품을 보여 주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보아주지 않는 작품을 창작한다는 것처럼 용렬하고 서글픈 일은 없을 것이다.

신문보급은 부서와 직급을 망라하여 '내 일이다' 하는 인식을 가져 주어야 하고 그러한 분위기에 짓도록 해야 한다.

江原日報는 지난해 가을부터 연고지별 신문확장반을 운영하고 있다. 편집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다. 地緣 學緣 교우관계를 십이분 활용, 침투하기 위함이며 신문판매의 어려움을 체험케 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現場에서 주민여론에 接하게 함으로써 지면제작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광고·출판정보 수집에도 협력체제를 다져나가고 있다. 정보수집 정도의 협력은 자기의 본업을 하면서 관심만 가져주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영업신장이, 나와 가정과 몸담고 있는 회사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인식과 고충을 이해하려는 우정의 토양이 형성된다면 協力體制는 확고해질 것이다.

江原日報는 사원들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위해 예산공개편성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심의과정에 직급별 대표자와 기자협회 대표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특히 시설투자와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공개와 의견 참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산공개를 통해서 사원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예산을 아껴 쓰는 마음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 製作側面

여건과 경영의 어려움이 지방신문의 발전속도를 늦추고는 있지만 숲을 헤쳐 길을 내

듯, 실오라기 풀어내듯, 노력해 나가면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住民의 사랑받는 향토지로 건실하게 성장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것은 현재 모든 지방신문의 紙面이 어제와 다르게 충실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예견되는 것이다.

### 地域뉴스확대와 地域균형 편집

지면구성과 뉴스의 配合에 있어 중앙정보의 비중을 줄여나가고 域內뉴스를 확대해나가는 데 지혜를 동원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構成比를 加減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채택한 構成比속에서 뉴스를 精選하고 뉴스에 따라 作稿量을 조절함으로써 실질적인 域內뉴스가 확대되는 편집기교를 말하는 것이다. 精選된 10件的 域內뉴스와 그렇지 못한 10件的 域內뉴스의 구성비는 量的으로는 같을지 모르나 質的으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質을 통한 域內뉴스의 확대는 더 모색해야 할 地方新聞의 과제이다.

뉴스개발의 지역균형도 소홀히 생각할 것이 아니다. 신문이 뉴스를 따라 다니며 제작돼야 함은 原論에 속하는 것이겠으나 지방신문이 지역의 여론과 이익을 대변하는 特性으로 보아서는 다소 作爲的인 지역균형편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같은 행사 같은 내용의 기사가 어느 지역과 비교하여 같은 比重이 두어졌는가에 대해서 지역독자는 민감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현안을 발굴 취재할 때 특정지역에 편중된다면 다른 지역독자의 항의가 빗발친다. 지방신문이 뿌리를 내리는데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고려의 대상인 것이다.

### 專門記者제도 운영

기구와 인력이 억제돼 있는 탓으로 전문기자 양성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방신문이다. 현재의 취재시스템과는 별도의 전문기자양성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예컨대 수산전문기자, 광산전문기자, 농업전문기자를 별도로 두어 깊이 있고 폭넓은 연구를 부여하는 것이다. 출입처와 주재지가 한정되어 있으면 과도한 업무량과 한계성으로 인해서 깊이와 폭이 형성되기 어렵다. 어느 분야의 전문기자가 양성되면

그 분야에 관한한 비전문기자의 두 몫, 세 몫을 감당할 것이며 중국에는 부족되는 人力에 대한 정예화의 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 독자가 참여하는 紙面

우리는 가끔 독자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독자성향에 따른 紙面제작에 유념하고 있다. 독자의 의견과 환경에 동떨어지는 지면으로는 구매력을 자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독자를 밀착시키기에는 거리감이 있다. 독자가 직접 제작에 참여하는 방식, 독자인 내가 참여하는 지면이라야 친근감을 더해준다. 되도록 많은 독자의 이름이 어떤 형태로든 지면에 수용되도록 독자페이지를 늘려나가야 하며 提言·호소·고발·알림·동정란 등이 충실하게 가꾸어져야 하고 慶弔事는 물론 사무실·주거·전화의 이전·해외왕래까지도 제보 받는 欄이 있어야 한다.

현재 거개의 신문은 독자 페이지를 두고 있지만 지면이 협소하거나 독자가 직접 제작에 참여하는 지면으로는 아직 미흡하다고 볼수있다.

지면을 매개로 인연을 맺은 독자는 권유에 의해 인연을 맺은 독자보다 탈락률이 거의 없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地方時代に 대비하는 감각

未久에 도래할 지방시대에 대비하는 지면제작에 관심을 둘 시점으로 본다. 87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地方自治制는 주민의 자치의식과 능력, 그리고 재정자립도에 따라 실시시기가 결정되게 되어 있으므로 여건형성을 위한 紙面이 다각적으로 연구되어야 할것이다. 자치의식을 키우기 위한 文化의 공급, 稅制문제 등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진단과 처방, 기타 지방시대에 앞서야할 諸問題들을 기획하여 86년도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방시대에 대비하는 지면은 中央신문에 앞서 지방신문의 과제이며 中央新聞보다 더 섬세한 감각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 4. 맺는 말

이상 지방신문경영과 문제점에 대해 論及해 보았으나 모델이 달리 있거나 有用한 方式이 도출된 것은 아니다. 序頭에 미리 말해둔 것처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길을 모색하는데 조그만 경험이나마 보탬으로써 토론의 분위기를 진지하게 하는데 一助가 되기를 바랄뿐이다.